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

서론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감사와 회개,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담아 올리는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기에 드리는 기도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가 깊습니다.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 1 - 감사와 회개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대상 16:8)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11월 첫째주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도 어느덧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열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신 모든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기쁜 일들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잊고 지낸 적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들과 다가올 새해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 2 - 추수감사절 준비의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전능하신 하나님, 이 11월 첫째주 수요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기에 농부들의 수고와 노력에 열매를 맺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적절한 비를 만나 풍성한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계절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는 가정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직장에서의 안전함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지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 3 -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런즉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엡 2:19)

사랑의 하나님, 이 11월 첫째주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함께 하시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의 임원들과 봉사자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각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옵소서. 중년의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랜 신앙의 연륜을 통해 후배 신앙인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 4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 2:2)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11월 첫째주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땅에 주님의 의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국정을 운영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오랜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주거 문제 등 많은 사회적 과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들, 한부모 가정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에게는 사명감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